

특별기획

대선, 선택이 미래다

A15 특별기고- '불교와 정치'

A16 대선후보들이 말하는 불교

A18 미리 보는 대불교계 공약



# “적극적 개입 경계·공정한 선거 힘써야”

12월에 치러질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불교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특히 서울시장출신 발인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에 유력한 상황이라 불교계의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불교계에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불자 대통령 또는 불교에 우호적인 대통령의 선출이라든가 이에 따른 불교계의 위상향상을 주장하는 정도이다.

## 불교계, 12월 대선 어떻게 치룰 것인가

다른 종교도 그렇겠지만 한 동안 불교는 선거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과거 정치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만 잡으면 불교계는 끝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후보들이 불교계에 약속한 정책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이는 불교계 스스로가 자초한 업보다. 불교계가 불국토 실현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 특정 정권, 특정 개인 정치지도자에게 매달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치인들로 하여금 불교를 쉽게 보고 불교정책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게 만든 것이다. 정치인을 맞이하기 앞서 불교계의 책임이 크다.

불교에서는 정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수행자가 속세에서 벌어지는 일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가 계속 산중에만 머무르면서 사회 정치 문제에 등을 돌릴 수만은 없다. 불교의 기본 교리가 고통 속의 중생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중생이 앞으므로 나도 앞는다"는 <유마경> 구절에서 불교의 정치사상이 잘 드러난다. <법구비유경>에서도 "여래가 세상에 온 것은 가난하고 소외되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약사여래의 본원도 남에게 매여 자유롭지 못하거나 갑에 고통 받는 이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뜻이다.

불교의 기본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상구보리하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에서도 불교의 정치관을 찾을 수 있다. '상구보리'를 위해서는 세속적 사회를 떠나야 한다. 그러나 '하중생'을 위해서는 세속적 사회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우리 불교는 오랜 호국불교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호국불교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불교와 정치권력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 호국불교란 국가 발전을 불교 발전으로 보는 현실불국도 완성의 의지가 나타난 호국사상이다. 호국불교가 결코 왕권의 굴복이 아니었다.

그런데 일제시대 이후 일부 권세가 권력과 손을 잡으면서 불교가 타락하게 되었다. '닭 벼슬다 못한 것이 중 벼슬'이라는 것이 불가의 오랜 가르침이었다. 권세의 무리가 가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권력에 빌붙어 중권을 제멋대로 휘둘렀다. 중권을 둘러싼 종단 내부의 다툼이 정치권력의 부도덕한 음모와 맞물려 불교를 타락시킨 것이다. 종단부는 우리 불교를 장악하기 위해 사찰명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친일 주지를 임명했다. 권력에 예속된 불교는 해방 뒤에도 권

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집권과정에서 친일파를 지지기반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친일 승려들이 특혜함으로써 왜색불교 친일불교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개신교 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을 '보살의 화현'이라고 추켜 주는 자세도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불교를 정화시킨 공은 평가가 엇갈린다. 불교 정화를 통해 비구의 전통을 회복하고 승려들의 타락과 부패를 척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화방식이 타율적이었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된 측면도 있다. 불교정화가 시작된 시기는 1952년 7월 1일 피난수도 부산에서 정치파동을 일으켜 발해개헌안을 억지로 통과시킨 직후였다.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불교정화를 시작한 측면이 있다. 불교정화가 자율적이지 않았고 권력에 의존함으로써 권 불유착의 소지가 마련되고 고질적인 종단 내분이 시작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교인구는 1995년 현재 2260

을 위한 기도'라는 현수막을 공개적으로 내걸고 법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반발하자 권승들이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했던 것이다.

14대 대선에서 불교계 지지의 여당의 김영삼 후보에게 쏟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불자 후보가 없었던 탓도 있지만, 지역성이나 기존의 친여적 속성을 뛰어넘지 못했고, 또 당시 권력과 밀착해 있던 서의현 총무원장의 역할이 컸다. 서의현 총무원장은 이전에도 "3당합당은 구국의 결단이며 김영삼 대표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소생시킨 지도자"라느니 "불교중흥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원래 불교계는 반(反) 김영삼 정서가 강했다. 개신교 장로인 김영삼 후보가 지나친 기독교적 편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영삼 후보는 13대 대선 때 "청와대에 찬송가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 "주일날 유세를 하지 않겠다"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그래서 13대 대선에서 불교계의 김영삼 후보 지지율이 노태우 후보의 절반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반김영삼 정서가 14대 대선 때 친김영삼으로 바뀐 것은 권불유착때문이었다. 또 당시 김영삼 후보의 사조직인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는 민족불교중흥회라는 선거 조직을 만들어 전국 사찰에 수백만원에서 수십만원에 이르는 시주금을 내놓았다고 당시 언론은 보도했다. 김영삼 후보 측의 불교계 포락이 주로 돈 잔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불자 대통령의 탄생에 있지 않다. 불자 대통령의 탄생은 좋은 일이다. 불자 대통령을 통해 불교가 확산될 수 있다면 그것도 굳이 막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불자 후보라고 무조건 지지하거나 불교관련 공약이 그럴듯하다고 지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불리 불자 대통령이나 불교 확산을 꾀하는 것은 자칫 불교를 통속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불자의 당선이 불교발전엔 꼭 도움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불자 대통령도 있었고 불자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불교의 개혁과 발전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봉은사 사태 때 권승 무리들이 내세운 명분이 노태우 후보가 불교신자라는 것이었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불교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없었다는 것이 교계의 평가이다.

불교가 종단 차원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를 지지하면 안 된다. 자칫 권력의 불교 간섭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는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른 대통령 뽑기를 운동하거나 부정선거감시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발자들만 불자 후보라든가, 불교 공약을 따져보기 전에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 과거 권불유착으로 이미지 실추

## 종단서 특정후보 지지 '안될 말'

만 명 정도이다. 전체 인구의 50.7%에 해당한다. 불교신자가 1032만 명(23.2%)으로 가장 많고, 개신교 876만 명(19.7%), 천주교 295만 명(6.6%)의 순이다. 2003년의 통계청 조사는 구체적인 인구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종교인구 비율은 1995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구 비율로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불교계의 영향력이 가장 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교계는 그 비중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 공략하기 쉬운 표밭 정도로만 인식되었을 뿐이다. 불교계가 선거에 이용되면서 불교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위상이 흔들렸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92년 14대 대선 때의 신성한 사람이 검은 돈 세탁장사로 이용당했던 상무대 80억원 비리사건이다. 당시 서의현 총무원장과 조기현 전국신도회장이 개입한 이 사건은 불교계가 권력에게 얼마나 우습게 보였나를 증명해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부끄러운 일은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 때도 있었다. 불교 내부의 갈등이었던 이른바 봉은사 사태가 바로 그것이다. 봉은사 사태의 본질은 권승 무리들이 여당의 노태우 후보에게 빌붙어 벌인 충성경쟁이다. 권승들은 사찰 법당에다 '노태우 후보의 당선



경기도 정치교육원  
손혁재 원장

### 천연백수정 108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평생염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불을 만들고 석불이마에 영험을 받기 위해 백수정을 집안해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광명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만 있어도 평생행운과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산 분, 사업을 하고 계산 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 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산 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백수정 108염주와 특별선물로 일반인에게는 손목단주를 스님에게는 합장주를 드립니다. 가격 95,000원  
전화 : (02)741-4477  
동행 : 053-02-228720 이진경

###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 얻으리라!

소중한 친자에게 사업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慈悲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불경에 지혜로운 중생은 빨리 깨달아 15가지 재앙을 물리치고 15가지 무량대복을 받아 공덕을 쌓으며, 그 이름이 세계에 빛날 것이라고 했다. 불경에 맞춰 신묘(神妙)법구를 넣어

모든일이 풀리게 만든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大慈悲力)의 신통한 중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불교의식인 점안식까지 고된지갑이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풍요로워지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반지갑95,000원 신용카드불발자 전화(02)741-4488 동행:032-12-193445 이상하

### 자동차 사고예방 삼고금강저 출시

다쳐를 화를 미리 쫓고 생명을 보호하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평생보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 위 거울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세상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가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비방의 법구가 삼고금강저이다. 달리는 자동차 사고는 자외선 타의 든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와 죽지 않으면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하는 역란이다.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축원불공마친 비방!!  
부처님 제1의 법구인 삼고금강저는 세상사는 동안 생명을 보호하고 다쳐를 화를 미리쫓고, 악연을 만나지 않게하며, 법적인 관세수를 소멸하고 금강의 지혜를 얻어 안전운행하게 하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부처님 가피로 생명보호와 안전운행의 축원불공까지 마친 자동차용 금강저는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순금니로 제작해 운전석위에 걸면 차안이 풀위가 있고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불심사에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38,000원  
전화 : (02)741-4477